

브라가의 소식들

Beracah Valley

제27호

갈보리선교회 회보

발행인. 김승석목사

제16차 갈보리선교회 특별전도팀 해외순회전도(캄보디아) 보고

Thanks

제16차 해외순회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 예수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주신 국내외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본회 회원교회와 후원회원, 기도회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쁜소식을 전합니다.



표지명 소개 Beracah Valley

여호사밧 왕이 이방 동맹군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복병을 보내 적군들을 지게 하여 전멸케 하셨다. 유다 군대는 한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였는데 그곳이 브라가 골짜기이다.

(대하20장, 브라가는 **송축** 의 뜻)

하나님께서서는 갈보리선교회도 각 팀들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와 춤과 드라마와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국내외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된 길로 이끌게 하심으로 그 모든 소식을 한 데 모아 널리 알리면서 하나님께 더 큰 송축을 드리고자 이 소식지를 '브라가의 소식들' 로 명명하게 되었다.

Table of contents

1. 표지, 표지명 소개 Beracah Valley
2. 제16차 해외순회전도(캄보디아)일정표, 현지감상문
- 3 - 5. 현지감상문
- 6 - 9. 단원감상문
10. 최근 국내전도집회 감상문
11. 갈보리NEWS / 해외선교 소식 / 최근 전도집회목록
12. 갈보리사역 소개 / 후원안내 / 단원모집안내



(우)136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7. 201호(금곡동, 더 프라우) 충만교회내.

T.(031)713.0807 F.(031)785.2319 (간사)010.5732.9009

갈보리선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브라가의 소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alvarymission.com>

<p>제16차 해외순회전도 일정표</p> <p>지역: 캄보디아(프놈펜, 씨엠립, 꾀뽕잠, 꾀뽕툼, 꾀달, 보앗, 뽀레이뽕)</p> <p>기간: 16.1.31~2.15</p>	1일	뽀러트머이교회(꾀뽕툼) 예수초청교회(꾀뽕툼)	9일	뽀르씨이제1교회 뽀르씨이교회
	2일	뽀레이끄리 꾀로까크농(꾀뽕잠) 뽀뽀뽀이 초등학교(꾀뽕잠)	10일	뽀레엑롱 희망학교(꾀달) 프놈펜 제일 한인교회
	3일	뽀레이작 끀레이 학교(꾀뽕잠) 로까교회(꾀뽕툼)	11일	뽀레이꾼교회(보앗) 뽀라이뽀어교회
	4일	트나웃 메따까로나 교회(꾀뽕툼) 쑈싼 꾀뽕툼교회(꾀뽕툼) 꾀뽕툼 센터	12일	지벳트머이교회 로더으뽀으룻교회(뽀레이뽕)
	5일	미은쨌이교회(꾀뽕툼)	13일	행복한교회(꾀달)
	7일	은혜마을교회(씨엠립) 씨엠립 참빛한인교회	14일	은혜교회(프놈펜)

예수님께 대해 더 알게 해
은혜국제학교
쓰라이온

갈보리선교회의 공연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 더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위쨌을 좋아하는데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또 갈보리선교회 분들께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공연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마을교회
마이 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심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은혜마을교회
티에룻

모든 순서가 은혜 넘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쑈싼 꾀뽕툼교회
무명

집회를 하는 동안 나는 내가 믿지 않았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갈보리선교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대해 가르쳐 주시고 연극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는 동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주셨습니다. 갈보리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 해주십니다.

마음속 꺼져있던 불을 지피는 시간
씨엠립 참빛한인교회
김영우 성도

- 찬양과 위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너무 좋았고 목소리도 크고 힘이 있어서 마음에 기쁨과 확신을 주네요. 귀한 찬양시간이었고 영감 있는 위쨌 댄스였습니다.
- 메시지/온전한 회개가 없는 습관적인 예배와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고 기도응답의 복을 받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매일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예수님의 생애 드라마/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서 건조하기만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내 마음을 치고 감동을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출연자들의 섬세한 표정연기가 극에 몰입되도록 도와주었네요. 귀한 드라마 감사합니다. 갈보리선교회 단원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해왔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의 꺼져있던 불을 지피는 시간이었습니다.





귀와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프놈펜 제일한인교회
최승욱 성도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한국말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저의 귀와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회개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과 심지어 바쁘더라도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언제나 옳은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셨습니다. 회개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과 성경을 배우고 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실감나게 연출하시고 연기해주셨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찬양과 워십과 드라마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르싸이 제1교회
디모데 목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에서 갈보리선교팀이 이곳까지 오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캄보디아에 오시길 소망합니다. 갈보리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와 찬양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쁘레엑롱 희망학교
스라이뎀 영어교사

오늘 저와 모든 어린이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갈보리선교회가 이곳에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드라마와 찬양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프놈펜 제일한인교회
임기쁨 성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심이 정말 부럽습니다.

껌뽕툼센터
무명

모든 순서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모인 사람들을 교육 시키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기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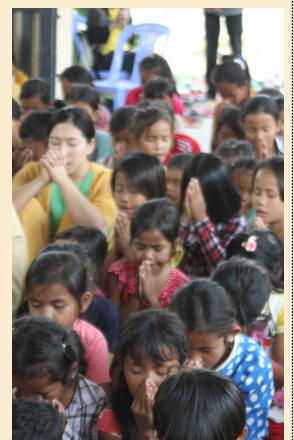
예수님의 생애가
내 마음을 만졌습니다
쪽싼 껌뽕툼교회
무명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의 생애가 내 마음을 만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 사탄이 시험을 주었던 것을 경험 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양, 기도, 말씀, 드라마 등의 모든 프로그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

미은제이교회
은어웃

이 집회에 참여해서 아주 기쁩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매우 흥미로웠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어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나는 여기 모인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로까교회
무명

갈보리선교회의 집회는 아주 실감났습니다. 복음은 나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연극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게 하였고, 복음을 통해 천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기에 아주 적절했습니다

크나츠마교회
몸사오

이 집회를 참석한 후에 이 팀이 다른 여러 마을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극은 예수님에 대해 알기에 아주 적절했습니다. 또한 설교와 통역은 아주 명확하였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과 인생에 대해
미은찌이교회
수튼 교장**

갈보리선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국에서 온 팀으로부터 복음에 대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과 인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회를 이곳에 보내주심을 알았습니다. 이 팀이 다시 캄보디아에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까교회
무명**

춤과 드라마를 보는 동안 아주 즐거웠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오늘 갈보리선교회의 모든 행사로 인해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처음

행복한교회
이상운 선교사

이곳 그롤란 마을 사람들은 강박합니다. 프놈펜시 변두리에 위치하고 공장 많이 있어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덥고 덥은 도시 변두리 영향이 보입니다. 저희가 2011년 성탄절부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단기선교팀도 여러 번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 모두 이렇게 집중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처음입니다. 워십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곳 강단에서 재현될 때 성령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었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모든 이들을 터치하사 예수 믿는 가정이 결실하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썸씨나

집회를 보면서 아주 기뻐고 모든 순서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드라마를 보면서 매우 감사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불모지인 이곳에서
큰 감동과 감화를**

씨엠립 참빛한인교회
김지혜 성도

은혜롭고 복된 찬양과 율동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 이곳 캄보디아까지 오셔서 보여주신 찬양과 율동이 신앙의 불모지인 이곳에서 큰 감동과 감화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확신합니다. 불교국가인 캄보디아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갈보리선교회의 큰 역할에 감사드리면서 더 많은 활동을 통해 불쌍한 영혼 구원에 큰 결실을 맺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비스프레벵교회
메이사폰

감동 깊게 잘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마을에 방문해서 갈보리팀의 공연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갈보리팀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갈보리선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똘쩨똘이학교
천치은(초등학생)

저는 똘쩨똘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에서 오신 성도들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프로그램과 성경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은혜국제학교
다라

갈보리선교회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드라마를 보고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앓은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져다가 십자가에서 담당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국의 갈보리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캄보디아에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팀의 모든 순서들이 아주 흥미로웠고

은혜마을교회
완나 목사

하나님과 갈보리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팀의 모든 순서들이 아주 흥미로웠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기뻐 했어요

꺼로까크농교회
장로

드라마가 정말 좋았고 울동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이 좋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만나서 기뻐고 하나님이 갈보리선교회가 가는 모든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은재이교회

안디웃 목사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크나츠마교회

짠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알기 쉬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도도 아주 명확하고 쉬웠습니다.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검뽕툼교회
네악스마이

갈보리선교회의 행사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다시 이곳에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캄보디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그 경이로운 사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윤철화 단원

이번 순회전도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다. 그래서 내 모든 중심을 붙잡고 열심히 달리려고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려 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일과 상황의 최선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비단 열심과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일에 따르는 지혜와 명철, 적극성과 세심함, 신중함, 분별력과 추진력, 리더쉽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갈보리선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정예군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 또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나거나 예쁘거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정확히 선포하고 타협하지 않고 밀고나가는 정직성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개개인에게 인정해주시는 것은 아니고 대표성을 가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 김승석 목사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모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가는 곳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여진 형식의 센터를 많이 보면서 이번 순회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캄보디아를 돌아다니며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났다. 본인들이 극빈한 지경 속에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문화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 등 돌아보면 짧은 시간에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라기만 하다. 일기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참으로 기도로 되었다.

꽤나 잘나갔던 캄보디아 국가는 잘못된 지도층이 권력을 잡고 잔혹한 킬링필드사건으로 인해 국가발전의 퇴보를 겪게 된다.

그것이 우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크메르국가의 끔찍한 우상숭배로 인한 재앙임을 알기에 더욱 마음이 쓸쓸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진멸하라”하여 어린아이, 뱃속의 아이까지 죽임을 당했던 일처럼 이 나라에 쏟아져 내린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의 잔재의 향이 맡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를 하게 된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뿌려졌다. 이 대목에서 나는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그 경이로운 사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순교자의 피로 인정하시고 심겨진 밀알이 되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추수하려 하시는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징그럽고 끔찍한 그 어마어마한 우상을 극진히도 섬긴 이 땅에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여 씨앗을 뿌리게 하셨다.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니 폐허 속에서 돌아나는 새싹과 같이 나는 이 캄보디아가 짠하지만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도 돌아나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결의한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저곳에 보내져 하나님의 손길이 되려면 나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가다듬어지고 무장되어야 하나?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내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려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내고 그냥 사랑, 사랑하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싸워서 이겨내고 또 그들이 싸워서 이겨내도록 만드는 일을 하려면 내가 얼마나 견고해져야 할까?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더 시급한 마음으로 나를 성장, 단련, 무장, 치료해야겠다. 속한 시일 내에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신임을 얻도록 말이다.

이ীদের 미래가 되어주세요

윤정화 간사(회계,워십댄싱간사)

벌써 삼일 췌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무덤지만 예년에 비해 유례없는 시원함이라는 말을 들으며 감사하게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은 700여명이 모인다는 부활교회(초등학교)부터 시작되었다. 땡벌아래에 정말 많이 모였다. 잘 보이지 않아 의자 위에 서서 쳐다보는 아이들, 목을 빼고 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더위 따위, 흠바람 따위는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까지 보내셨는지 알 것 같았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 아이들이 많다고 했다. 이들이 자라면서 오늘을 기억하며 신앙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다음 집회 장소로 이동하였다. 나무로 만들어지고 있는 작은 교회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먹고 집회를 시작하였다. 집회 중에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였다. 손짓을 하며 불렀지만 쉽게 다가오진 못했다. 하지만 다행히 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 아이들이 왔을 때 하지만

입어서 새까맣게 탄 상체와,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발을 보았다.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간식도 옷도 아닌 예수님이였다. 더 간절히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임했다. “주님! 이 아이들의 미래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기억하고 성인이 되어 만나서 함께 기뻐하게 해주세요.”



제16차 해외순회전도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김이영간사(영어간사)

양코르와트라는 거대한 우상의 본거지가 있는 캄보디아에서 정말 많은 영혼을 만났다. 우리의 기도대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였고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다. 우리가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기간은 원래 날씨가 더워야하는 것이 정상인데 날씨까지도 전도와 전도자를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매일, 시시때때로 확인하고 체험하였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는지 순회전도 때마다 느끼지만 이번에도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다시금 확신케 되었다. 전도자로 발탁된 우리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무능하다는 표현이 알맞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들어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또 반면에 마귀가 이 전도를 얼마나 싫어하고 틈을 노리는지를 발견케도 되었다. 생각지도 않는 일, 문제가 될 수 없는 일을 문제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전도자를 방해하는 마귀의 공작을 보며 '이것들도 쉬지 않

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전쟁에서 패배치 않기 위해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팔을 들어주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군사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주님께서 그 교묘한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 전보다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심을 체험했다. 비록 순회전도를 마친 지금 육신의 피로가 다 풀린 것은 아니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를 회상하며 감사의 미소를 짓게 된다.

갈보리선교회를 점점 더 마귀의 역사가 극심한 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전도자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더 든든히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각자 삶의 터전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하고 가정을 돌보기도 해야겠지만 그 어떤 일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또한 기뻐하시는 일이 곧 영혼구원임을 늘 명심해야 하며 전도자로서 자신을 무장하는 일을 쉼 없이 해야 한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를 먼저 제압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영적전쟁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더욱 강하게 무장을 하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전도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전도와 선교가 된 것처럼

주정림 간사(서기)

드디어 캄보디아에서 제16차 해외순회전도가 시작되었다.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온 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가려움증이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뿌러트머이 교회로 가서 전도를 하였다. 모인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를 다녔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조상 대대로 극심히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빵을 얻어먹기 위해 온 아이들이었지만 이들이 오늘 시간을 통해 정확한 복음을 듣고, 또한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김성태 선교사님이 열정적으로 통역을 잘해주셔서 대부분 어린아이들이었지만 잘 따라하고 결신기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나같이 죄를 많이 지은 자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빠짐없이 다녔었지만 집이 불교를 믿어 제사를 드리거나 절에 함께 가는 등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를 많이 저질러온 집안의 사람이 김승석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갈보리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여러 나

라와 이곳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이런 내가 그동안 정확한 복음과 말씀을 배우며, 말씀훈련, 기도훈련을 통해 영혼이 치료되어 갈보리선교회 전도뿐만 아니라 개인전도의 귀중성도 깨닫게 되어 지금은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전도와 선교가 된 것처럼 이 곳 캄보디아에서 만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확실히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 하나하나가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영육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의 집회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마쳤다. 그러는 동안 밤새 시달렸던 가려움증도 없었고 돌아와서 동료 단원이 주는 로션을 바르고서 깨끗하게 낮게 되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깨닫고 더 열심히 남은 일정에 임하리라 다짐을 하는 하루였다.

그들의 소리 없는 함성과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권지현 단원

나의 첫 해외 순회전도가 2주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막을 내렸다. 길다면 긴 기간이었지만 막상 돌아온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첫째 날은 너무 덥고 지쳐서 '2주가 언제 지나가지?' 라는 생각을 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영혼들을 만날수록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다. 첫 해외순회전도인 만큼 국내순회전도와는 다른 깨달음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정말 캄보디아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은 한국의 영혼들을 우선시 여기고 다른 나라의 영혼들은 내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뒷전으로 여겼는데 다른 나라 영혼들,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고 구원 얻길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캄보디아는 극심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다. 몇 미터만 걸어가면 바로 다른 우상 조각을 볼 수 있었다. 나 같으면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한국의 영혼들을 사랑하듯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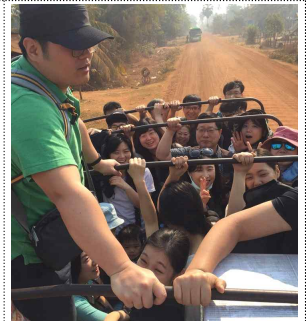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똑같이 계시며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국내순회전도 때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였듯이 이번에도 그러한 역사를 맛보았다. 아니 오히려 더 뜨거운 승리를 체험하였다. 국내순회전도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무더웠던 날씨 탓도 있었지만 마귀의 역사가 더 극심했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잔병치레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더 많고 더 강한 악령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역사 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이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되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캄보디아로 가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 두 가지는 모기와 날씨이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찌지? 한국과 극심한 기온 차에 병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곳에서 2주간 있었던 결과, 나의 이러한 걱정은 정말 쓸데없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캄보디아에 이상 기온을 주셔서 오히려 선선한 날씨, 심지어 어느 아침에는 추운 날씨를 주셨고, 향신료 때문에 못 먹을 줄 알았던 음식들이 오히려 한국음식처럼 맛있게 나오고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대접을 받아 중간 중간에 기력을 잘 보충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 틀림없으시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는 여기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처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훈련 받는 자들은 없을걸?' 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해왔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렀던 은혜센터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다.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훈련받았다. 그 센터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의 생각에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동시에 위기감을 느끼

게 되었다. 이 아이들은 나에게 일종의 자극제가 되었다. 나 말고도 내 자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그러므로 내가 지금에 그치지 말고 더 열심히 훈련받고 연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앞으로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해외순회전도는 이처럼 많은 깨달음을 내게 가져다주었다.

결론은 결국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이다. 그동안 이 사실을 은연중에 잊고 살아왔었는데 이번 순회전도를 통해 번개가 번쩍이듯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했다. 앞으로 이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더 귀한 자리에서 쓰임받기 위해 더 노력하는 단원이 되도록 힘쓸 것이다. 감상문을 마치며 캄보디아 해외순회전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김없이 승리를 안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주셨고,
큰 은혜를 베풀어주셨는지

이성하 단원(부엔지니아)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씨엠립에서 프놈펜으로 이동하는 날이다. 한국에서는 구정 연휴 당일로 왓자지껄한 날인데 이곳은 순회전도 중반에 들어섰다. 특이하게도 오늘은 집회가 없었는데 이동 시간이 무려 6시간이나 걸려서이다. 모처럼의 여유를 느끼며 그 동안의 피로도 풀고 많은 구경을 하였다. 국내순회전도였다면 계속 운전을 하느라 쉬지 못했을 텐데 쉬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그 긴 시간 동안 때때로 많은 감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참한 곳을 볼 때마다 '똑같이 우상이나 섬기던 두 나라였는데 어찌 우리나라만 이렇게 복을 받아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주셨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던 조상들의 자손들에게 그 거룩한 복음전파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주간 동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유종의 미를 거두며 우리를 통하여 이곳 캄보디아의 영혼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누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1888년대에 조선 땅에 쏟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사랑을, 희생과 섬김을, 그리고 전도의 열정을

최수진 단원

캄보디아 순회전도를 위한 오랜 시간의 준비들이 끝나고 '2주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시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을 갖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출국하였던 첫날이 떠오른다. 이 다짐으로도 페루 이후 오랜만에 해외로 떠나는 설렘은 잠시.. 첫 집회부터 쉽지 않을 영적 전쟁임을 직감하게 되었다. 예기치도 못한 조명 사고와 이유를 알 수 없는 들리지 않는 채찍 효과음 소리... 더욱 긴장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이 전도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절대로 준비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 캄보디아 땅에 씨앗을 잘 뿌리고 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금이라도 여행의 기분을 느끼고자 했던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왔다면 용서해주세요"라고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 세계 땅끝까지 전도해야 하는 나에겐 이 나라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딱 한 번 밖에 오지 않는 시간이라 생각하니 그 시간이, 이 하루가, 순간순간이 너무나 귀했다. 그래서 야외 집회할 때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는 벌레가 내 팔과 바닥에 기어 다녀도 아무렇지 않은 척 찬양과 워십을 할 수 있었다. 또 냄새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비위도 약한 나지만 그 아이들의 머리에 이가 가득하고 몸에서 악취가 났음에도 장갑도 끼지 않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묶어주고,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니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1880년대에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도했던 그 시간들이 겹쳐졌다. '그들의 마음도 이러했을까?' 생각하며 그때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사랑을, 희생과 섬김을, 그리고 전도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다. 나는 참 보잘 것 없는 존재인데 나를 전도자로 세워 주셔서 이렇게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며 유익한 삶인가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센터 친구들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만 받은 훈련이라 생각했던 마음이 접혀지고 말씀과 기도를 더 열심히,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과 배움을 통해 더 쓰임 받는 전도자로 거듭나야 함을 절실히 깨닫고 배우고 온 값진 시간이었다.

국내순회전도도 물론 그렇지만 해외순회전도는 그 갑절의 이상을 체험하고 깨닫고 배우게 된다. 만났던 센터 아이들과 동역자들을 잊지 못할 것 같다. 헤어짐이 아쉬웠지만 다시 만남을 기대하고 헤어졌는데 하루빨리 보고 듣고 배웠던 것들을 깊이 새겨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만났던 동역자들과 다시 만나 함께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갔다 온 후 모두들 긴장도 풀렸는지 체력적으로 고생하시는 목사님과 단원분들이 있다. 나역시도 종일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체력단련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함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미 씨앗은 뿌려졌다. 거두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텐데 잘 견뎌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정말 그 캄보디아 전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 잔치를 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중심, 교회중심, 사역중심
캄보디아의 부흥이 기대되었다

류춘복 간사(중국어간사)

캄보디아로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난 이미 한국에 돌아와 있다.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셔서 2주간 마음껏 전도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 가기 직전 영하 20도 가까이 되었던 한국에서 영상 40도를 향해 달리는 캄보디아로 옮겨가 첫 이들은 너무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일기도 주장하여 주셔서 나머지 날 동안 견딜 만하게 해주셨다. 전도에 열정 있으신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을 모아두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모인 영혼들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는 천국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큰 목소리로 외칠 수 있었다.

너무나 척박한 땅,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서 아직 순수하게, 복음의 초청에 나와 앉아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 감사했다. 한국 복음의 초창기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

또한 한국선교사님들이 세우신 센터들마다 24시간 상주하며 보호받고 훈련, 양육 받는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든 일정이 하나님중심, 교회중심, 사역중심인 듯하다. 열심히 사역을 돕고 손님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캄보디아의 부흥이 기대되었다. 그들이 바로 한국의 복음화를 이룬 초창기 멤버들 같은 존재가 될 것을 믿는다.

아직 우상이 너무나 깊게 자리잡고 있는 이 땅에서 먼저 선교사님들께서 끝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 겸손히 힘써주실 것을 계속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잘해서 반드시 한국으로 전도하러 오겠다"고 한 몇몇 아이들이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것이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도우시고,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6사단 2연대 1대대
상병 임채울

워십으로 시작해 찬양과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위문예배라고 해서 가볍게 그냥 앉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아무 은혜도 없을 것이라는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듯 워십과 찬양, 드라마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꼈고 나도 찬양을 하면서 진심으로 찬양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반성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간사님, 목사님의 말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 안에 서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진정한 예배자답게 살아야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강렬하면서도 쉽고,
큰 은혜가 되었다**

인천외국인선교회
최인환 집사

갈보리선교회는 벌써 3번째 보는 공연 팀이다. 하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내가 만민 중에 이런 찬양들은 그렇게 신나지는 않지만 여기 모여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찬양이었다. 드라마의 내용도 참 좋았다. 모든 사람의 일생들을 표현하면서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데 예수님의 구원 속에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도 참으로 확실한 메시지로써 전달이 된 것 같다. 목사님의 복음의 내용은 메시지가 강렬하면서도 쉽고, 큰 은혜가 되었다. 갈보리선교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해 하셨습니다

효플러스요양원
이현숙 직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오늘 갈보리선교회와 함께 예배드리실 때 행복해 하셨습니다. 저희도 주일예배 못 드려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참 감사 합니다

**주님을 통한 치유 1사단58포병대대
이병 전 현**

이학주 병장님의 권유로 처음으로 베델교회에 왔습니다. 사회에서 혹은 신병교육대에서 가본 교회보다는 약간 아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불이 꺼지고 목사님의 기도를 시작으로 공연은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아담하게 느껴졌던 작은 교회가 굉장히 웅장하고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얀 옷과 주황색 리본을 단 자매분들은 아름다운 멜로디에 아름다운 댄스를 입혀 저를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무언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기만 하는 현대인들의 허무함을 치유하는 주님을 그린 무언극이었습니다. 현대인들 사이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만큼 현대인들은 하루하루 바쁜 삶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봤자 마음이 힘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힘든 현대인들에게 주님은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허무와 슬픔을 넘어 기쁨으로 인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극을 보면서 과거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힘든 고시라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발버둥치기만 했던 저는 결국 지쳐 절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고 주님을 통한 치유를 알았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신자였던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공연 보여주신 갈보리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국군청평병원
병장 정다운

비록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드라마로 본 것은 처음이었다. 글로 읽는 것 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았다.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몽클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곧 전역하여 사회에 적응 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있었지만 드라마를 보고 성경말씀을 들으며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나의 인생의 소중함과 나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 어떤 상황이 닥쳐도 예수님께서서 겪으셨던 것 보다는 힘들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회생활에 용기를 갖고 거침없이 달려들 것이다. 감사합니다.



진중세례식

남평양노회 주관으로, 또한 노회 남전도회연합회 찬조로 1월23일 갈보리선교회와 함께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에서 진중세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300여명의 병사들이 예배에 참석하였고 193명의 훈련병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워십의상

20년 넘게 입고 있는 워십댄스 의상을 일부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봉사 및 협력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귀한 물품을 제작할 수 있는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제작

또 하나의 복음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 및 봉사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현재 5개 드라마가 있음)

입 학

임희훈 단원(충만교회)이 2016년 3월 연세대학교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결 혼

이사회원이신 박신봉목사님의 딸 박지인 자매의 결혼식이 2015년 11월 28일에, 그리고 김중남목사님의 아들 김지훈목사님의 결혼식이 2016년 1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유치장전도 사역

- 서울팀** - 서울 강동, 수서경찰서를 격주로 토요일에 방문하여 전도함.
- 대전팀** - 동부서, 서부서, 남부서, 북부서, 청소년 분류감호소를 매주 토요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전도함.

캄보디아

-이상윤선교사

캄보디아에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이상윤 선교사입니다. 2월 13일 행복한 교회에서 갈보리 선교회의 김승석 목사님과 모든 단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도 아닌 선교지 캄보디아에서 갈보리 선교회와 같은 전문 선교팀을 통해 복음을 접한 건 저나 캄보디아 친구들 모두 너무 놀랐고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다양성을 다시 한 번 보았습니다. 마치 천사들의 찬양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캄보디아 제자들도 이 땅 캄보디아 곳곳에 다니며 갈보리 선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오길 꿈꾸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파리간이

-안경환선교사님

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파리와이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있듯이 개인의 인생사와 사역에도 그렇게 다가옵니다. 제게 다가온 겨울의 추위의 시간 속에서도 화창하고 따뜻한 온기로 함께하시니 무엇이든지 감사입니다. 이번 3월에 20명이 넘는 인원에게 세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교도소 전까 이제는 자리가 조금씩 잡혀서 기독 생활관의 인원이 백명에 가깝고 두 개의 새로운 옥사도 진행되어져 완공되면 기독 생활관의 모습도 많이 변하여 질것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1.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확실한 교회사역을 위해
- 2.3월에 있을 교도소 세례식의 준비와 기독 생활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 3.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을 위해

특별전도팀 집회목록 2015년 1월 ~ 2016년 3월

1/25	하남연약사랑나눔요양원 (노인복지시설)	8/4	익산실로암사랑요양병원 35사단106연대1대대	10/4	양평그린내누리 시니어타운
2/1	성남엘림실버빌(노인복지시설)	8/5	35사단106연대1대대해안1중대	10/11	하남효덕노인요양원
2/8	60사단사령부		전주드림교회(전주하가교회)	10/18	태전소망요양원(노인복지시설)
2/22	외국인선교회	8/6	35사단105연대3대대	10/25	25사단70연대3대대9중대
3/1	51사단보병사단사령부	8/7	완주사랑드림요양원(노인복지시설)	11/1	국군청평병원
3/8	61사단178연대		완주국제재활원	11/8	61사단178연대
3/15	수도기계화보병사단	8/9	김제창대교회	11/15	1사단58포병대대
3/22	17사단100연대		31보병사단사령부	11/22	이천한나원(노인복지시설)
3/29	5사단196포병대대	8/10	광주동명노인전문요양원	11/29	수도군단1175공병단
4/5	6포병여단911대대	8/11	목포장애인요양원	12/6	대전국군병원
4/12	1포병여단898대대		31사단96연대2대대	12/13	1포병여단655대대
4/19	수도군단1175공병단	8/12	목포노인전문요양원	12/20	5포병여단5포병단101대대
4/26	용인수연당노인요양원		31사단96연대	12/27	양평그린내누리 시니어타운
5/3	28사단1포대	8/13	목포공생원(이동복지시설)	1/3	상남효플러스요양원
5/10	하남효덕노인전문요양원		31사단93연대	1/10	한국보훈병원
5/17	이천한나원(노인복지시설)	8/14	35사단105연대	1/17	6사단2연대1대대
5/24	하남연약사랑나눔노인요양원	8/23	죽전요양원(노인복지시설)	1/23	수도기계화보병사단
5/31	2기갑여단6전차대대	8/30	용인풍산요양원(노인복지시설)	1/24	2포병여단11포병단
7/12	한국보훈병원	9/6	성남실버빌(노인장기요양원)	2/28	한국외국인선교회
7/19	용인마더링케어요양원(노인복지시설)	9/13	양주산성교회(송영준목사 시무)	3/1	죽전용양원(노인복지시설)
8/2	7공수특전여단	9/20	한국외국인선교회(인천)	3/6	2기갑여단6전차대대
8/3	군산구세군목양원(장애인복지시설)	9/27	아기예소망교도소	3/13	1공수특전여단
				3/20	61사단178연대

사역소기

국내사역

특별전도팀 사역

***본 팀의 전도집회**는 A,B,C,D,E프로그램 중 대상에 따라 가장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집회(공연)이 이루어지며 복된 말씀은 본 회의 메시지위원(목사 외)이 2회로 나누어 영력 있는 말씀으로 큰 은혜와 감화를 끼치게 됩니다.

***각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찬양과 워십 댄싱이 어우러지며 천지창조, 예수님의 일생, 탕자의 비유,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 everything 등의 드라마가 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집회가 됩니다.

***본 집회를 통하여** ①새 교우나 연약자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시되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②기성 신자들은 영적 각성과 변화를 큰 감동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군부대공연전도집회

각종 휴일과 매주일 저녁에 전후방 군부대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전도하는 가장 주된 사역

교회찬양전도집회

각 교회의 초청을 접수하여 순차적으로 택일하여 주일저녁시간에 가지는 특별집회

중.고.대학교공연전도집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특정일에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사역

특수기관공연전도집회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재활원, 병원 등 각 특수기관의 초청으로 특정일에 방문하여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사역

순회공연전도집회

평상시 원거리 지역을 위한 전도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키 위하여 1월과 8월의 휴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국내 각 지방을 연차적으로 선정하여 2-3 주간 동안 군부대,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기업체 등과 각 교회에서 특별전도집회를 하는 사역

유치장전도팀 사역

서울의 강남, 강동경찰서와 대전의 동, 서, 남, 북부경찰서, 청소년분류감호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팀들이 있으며 토요일 오후시간에 사역합니다.

해외사역

해외순회공연전도사역

2년에 한 번씩 2-3주간을 설정하여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전도사역으로 현지교회, 학교, 교도소, 마을광장, 공연장 등에서 전도집회를 합니다.

선교사지원사역

재정과 기도, 순회전도, 교회건축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역입니다.

교육훈련사역

수요정기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7시30분에 본부교회인 분당 충만교회에 모여 영성훈련과 프로그램 연습을 합니다.

제자훈련반

수요정기모임과 함께 가장 주된 훈련프로그램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4시에 본부교회에 모여 찬양과 기도, 성구암송, 큐티나눔, 말씀공부, 통성기도로 모든 사역을 위해 정예일꾼으로 훈련합니다.

목장모임

매주 1회 목장별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한 주간의 생활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훈련

1월과 8월에 실행하는 국내외순회전도 전에 약 2회에 걸쳐 한 주간씩 훈련을 받는 시간으로 모든 기도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육 간에 철저히 준비합니다.

후원&기도회원,단원 모집안내

1. 후원회원: 물질과 기도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 교회-후원금 송금은 월별 또는 연간으로 선택해서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농협:017-12-077384

*국민은행:825-21-0082-437

*우리은행:146-08-237723

(예금주/김승석)

3. 특별전도팀,유치장전도팀 단원: 실무사역훈련과 국내외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학습교인이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713.0807 / 010.5732.9009 www.calvarymission.com)

네이버&다음에서 갈보리선교회로 검색)

2. 기도회원: 모든 사역을 위해 매일 기도로 동참하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 - 본 선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상이나 또는 본 회가 별도로 보내드리는 보고서의 기도제목을 답지하시고 매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